

김승연 한화회장 경영참여 정상화

12월28일 대통령 당선자 간담회 참석 ... 그룹 인사시기 1월로 앞당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보폭을 늘려가고 있다.

12월27일 한화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12월28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의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김승연 회장은 현재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어 참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으나 고심 끝에 12월26일 오후 늦게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간담회를 주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관계자는 “대외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그래야 심적인 문제도 다스려지고 상황을 빠르게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회장은 2008년 벽두에도 분주히 움직일 예정으로 2008년 1월2일 예년처럼 계열사 사장단 등 주요 임원진과의 신년 하례회를 갖고 글로벌 사업약진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김승연 회장이 경영 정상화에 탄력을 붙이면서 2008년 2-3월로 예상됐던 그룹 인사 시기도 1월로 앞당겨지는 등 전반적인 경영일정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연 회장은 최근 3개월간 일본에서 장기요양하다 귀국한 뒤 그룹의 모태인 한화 주식 300만주를 3아들에게 증여하고, 일부 계열사 대표이사직을 내놓는 등 전열을 정비하고 사회봉사 활동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2/27>